

建築史의 意義

曹 建 永 서울市都市計劃委員

1. 西洋建築史가 우리나라의 建築教育에 있어서 當然한 커리큘럼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 벌써 반세기가 넘게 되었다.

또한 韓國建築史도 여러學校의 강좌로 등장되어 있고 現代建築論, 또는 近代建築論이라는 이름의 一次大戰 이후의 서양건축흐름에 관한 近代建築史도 여러 학교에서 강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西洋建築史를 代表로 한 여러 建築史教育이 과연 意義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意義가 있다면 어떠한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강의方向과 方法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를 “愚問”같은 질문을 던져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質問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建築史教育 狀況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왔나를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近代史, 모든 部門의 性格이 그렇듯이, 建築史 또한 日本帝國主義의 強占과 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古代에 日本으로 中國文化를 건네주던 채널이었던 近代의 日本은 우리에게 西歐文化를 건네 준 채널이었다.

19세기 후반에 성립된 明治政府는 봉건적 여러 制度나 봉건적 思想의 타파를 爲하여 유럽 近代文明의 積極의 수입을 도모했다. 철도의 개통, 전신 전화와 우편의 개시, 가스등의 사용, 벽돌로 만든 서양식 건축, 洋服의 도입, 쇠고기를 먹고 맥주를 마시는 洋食의 보급, 상투를 폐지하고, 이발을 하고, 또한 태양력을 채용하여 1日 24시간, 週日制를 취하여 日曜日을 휴일로 정하는 등, 文物, 制度, 風俗, 習慣의 모든 면에 걸쳐서 改革이 實施되어 歐美風 洋식이 판을 치게되었다. (* 1)

이러한 内地(日本)의 洋風輸入은 時差를 두고, 그리고 약간의 曲解를 거친 채 半島(韓國)에 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우리의 建築史教育의 出發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日本의 建築史學의 환경과 우리의 그것의 거의 類似함을 意味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日本에 있어서의 建築史活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建築史活動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는 期待는 별로 무리가 아닐 것이다. (* 2)

3. 西歐諸國의 建築史 研究方法이 建築形態에 關한 意匠

論, 또는 建築理論에 關한 藝術史로서의 傾向이 농후하거나, 美學的 批評에 關한 藝術論史로서의 傾向, 또는 技術史論인 意匠이 強하였다면, 日本의 建築史 研究方法은 대체로 歷史科學的 傳統이 強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의 原因으로서 우리는 日本에서의 建築史學이 明治維新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시 日本建築은 古代로 부터 江戸代까지 그야말로 木構造의 건축뿐이어서 明治維新과 더불어 導入된 西洋建築術은 古來의 日本建築과는 엄청난 斷層을 形成시킨 것이다. (* 3)

日本이 近代國家라는 洋態를 보이기 위해서, 西歐가 2000년 이상 發展시켜 온 建築術을 明治 30年동안에 消化시키려 들었다는 것은 곧 消化不良症勢를 일으킬 조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무비판적으로 導入된 當時 西歐의 折衷主義的 建築術은 東洋人에게 어떤 面으로는 新鮮感을 주었고 自身들의 過去의 악몽같은 前近代의 歷史 狀況으로부터 점점 脫出해 나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西洋建築(崇仰의 대상인) 그 自体로써 理解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現代建築의 觀點에서 볼 때 가장 創造性이 저조했던, 그리고 가장 많은 虛飾性을 지니고 있던 折衷主義 建築術의 諸 弱點 및 矛盾은 고스란히 東洋 땅에 移映된 것이다.

그리고 折衷主義 건축方式에서 가장 重要視된 建築史教育 또한 建築修業에 있어서 必須의인 코스로 看做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희비극은 明治維新代의 조급한 日本人들이 西洋의 절충주의 諸樣式을 速成코스로서 마스타하고 난 明治中期쯤, 이들의 核苦努力을 비웃거나 하듯이 西洋建築史가 코케르니스의인 轉換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일어난다. 즉 西歐建築은 當時의 折衷主義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철과 유리, 콘크리트등 새로운 材料와 各 部材에 對한 応力解析方法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能率과 効用이라는 機械美學에 基礎를 둔 近代建築의 時代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4. 이리하여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建築家가 每日 構想하여 圖面化해야 하는 建築技術과 意匠術의 供給源이었고 西歐建築 그 自体이었던 折衷主義 建築이 한물 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近代로 나아가는 模倣의 對象이 漠然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自身들의 傳統的 建築으로 돌아 갈 立場은 못되었고 돌아

갈 수도 없었다. 이런 엉겨주춤한 姿勢가 오늘날에 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그 弊害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그 例로 日本에서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建築史冊을 보면, 工業高等学校 교과서로부터 建築學大系, 내지 一般的으로 建築史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책에도 日本建築史, 西洋建築史의 三区分이 되어 있다. 또한 美國建築學會誌의 教育特輯에 나타난 세계 各國主要大學 講座一覽表를 보면 近代建築史라는 講座가 있는데는 東京大學 뿐이다. (*4) 이처럼 建築史가 세 갈래로 나누어져야만 하는 現象의 根源을 우리는 明治代의 消化不良 증세가 극복되지 않고 固着化된 사실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5. 왜냐하면 建築史란 그 本質에 있어서 實際 建築活動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의 建築史學이 이처럼 복잡하게 뒀다는 것은 建築史가 建築實踐과 正當한 關係를 맺지 못하고 展開됨을 意味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關聯”은 보자르의, 折衷主義의 關係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日本의 西洋建築史研究가 明治前半期에 있어서는 日本의 近代化를 상징하는 洋態의 具現이라는 確固한 目的意識을 가지고 시작되었다가 近代建築의 등장과 더불어 “建築史 自体를 爲한 建築史”와 같은 고루하고 무기력한 空洞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建築史本然의 目的을 잃어버린 데서 그 主要한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化石化”과정 때문에, 當然히 이어져야 할 近代建築史와 所謂 西洋建築史間의 맥락은 서로 끊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나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나 西洋建築史와는 다른 명칭의 近代建築史, 또는 現代建築論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런 明治代의 西洋 建築史存在의 特殊性이 그대로 反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特殊性 즉 建築의 實踐的活動과 建築史研究間의 乖離는 日本의 建築史學의 傳統을 歷史科學的 側面이 強한 性格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다. 建築史家는 社會的實踐과의 高리를 끊긴 채 “建築史 獨自의 領域”이라는 孤立主義的 傾向을 구축하여 말하자면 一種의 史學者가 되버린 것이다.

6. 日本에 있어서 西洋建築史의 上陸은 古宇, 齊藤 共訳의〈世界的建築史〉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5)

너무나도 有名한 이 Flethter 卿의 A History of Architecture on the comparative method는 1896년에 初版이 나온 이래 17版을 거듭할 程度의 世界的인 베스트셀러이다. 日本에 알려진 최초의 건축史인 이 冊은 유럽人 (이중에서도 특히 大英帝國)이 自身들의 建築史를 中心으로 世界建築史를 살펴본, 本質적으로 自身들의 建築史가 곧 世界建築史라는 意識下에 쓰여진 것이다. 이 冊은 또 어디까지나 西歐人의 안목으로, 그것도 19세기 후반의 藝術史的 建築史觀을 가진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文化藝術의 立場에서 技法, 圖像(inc-onography), 文樣 등의 諸樣式과 그것이 주는 象徵的 意味를 파악하려는 努力이 集中된다. 그리하여 建築史는 각

時代가 갖는 樣式들 간의 相互交流, 그리고 그 交流에 따른 發展關係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折衷主義的 樣式論으로 파악된다. 이런 立場에서 보면 建築史는 18세기에 그 大團圓의 막을 내린 것이 된다. 왜냐하면 近代建築의 樣式은 그 以前의 建築史 樣式 어느 것과도 연관되지 않은 전혀 不連續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互交流에 의한 樣式論의 立場으로 說明될 수 없는 近代建築은 建築史의 對象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近代建築家들, 또는 近代建築을 옹호하는 批評家들이 한결같이 이들 折衷主義 時代의 史觀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當然 하다 할 것이다. (*6) 그러나 이 혐오감에 의해 形成된 建築史의 斷絶상태는 近代建築 自身을 위해서 좋지않은 “不自然스러운” 事件이었다. 오늘날 現代建築이 보여주는 混亂의 根源을 이런 歷史的斷絶에서 찾으려는 주장이 많은 것은 그 斷絶에 의해 近代建築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現代建築이 자신의 歷史의 뿌리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自体가 歷史的 生成物인 社會生活 또는 價值觀속에 安定된 위치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여하튼 近代建築과 절충주의의 건축 兩潮流가 자기들 나름의 신념에 의해 만들어 놓은 建築史의 斷絶은 日本에서 無批判하게 받아들여져 西洋建築史에서는 있을 수 없는 斷絶이 日本에서는 現在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不自然스러운” 단절상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自然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7. 이렇게 “斷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建築史와 意匠論 내지 建築論사이의 確然한 区分도 조금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낳았다. 이러한 態度가 日本에서의 西洋建築史研究分野를 歷史科學的인 獨自의 方向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 後 自身들의 建築史인 日本建築史연구도 그런 方向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즉 歷史科學的 因襲의 研究方法論 때문에 在來式 日本 建築史 伝通은 年代의 考証과 遺構의 實測調査를 주된 目標로 삼게 되었다. 日本 建築史는 하나의 正當한 建築史가 아니라 歷史科學的인 한 支流로서 차라리 考古學 그 自体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된다. 이런 態度는 고스란히 우리의 경우에도 통용되고 있다. 이런 態度가 서서히 깨뜨러지게 되기 시작한 것은 建築史와 建築實踐과의 關係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日本의 경우 戰後經濟회복에 따른 住宅의 大量供給問題가 크게 부각되면서, 日本建築史에서 버림받고 있던 民家分野研究가 活潑해 지기 시작한다. 民家研究는 이제까지 주로 民俗學, 또는 人文地理學의 學者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것이 건축家들의 관심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7)

특히 취락공간의 地域的 양식, 階層分布의 分析, 外部空間의 形成技法 등 綜合的인 方向의 研究는 大規模 취락 조사 活動과 더불어 活潑해 지고 있다.

西洋建築史 分野에 있어서도 以前의 因襲的인 양식 론을 깨뜨리고 새로운 視覺으로 西洋建築史를 재구성 하려

는 시도는 日本建築이 世界的인 活動舞台를 가지게 되면서 부터이다. 특히 中東과 아프리카쪽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발주되면서 부터 世界건축사에 對한 재검토가 必要해졌던 것 같다. 熊本大學의 堀内清治教授를 중심으로 하는 “地中海建築研究會”가 그 좋은 예이다. (*8) 이들은 이슬람 건축에 중점을 두고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建築傳統을 說明하기 좋게만 中近東과의 交流를 해석 하는 것을 반박한다. 즉 中近東建築에서 西洋건축, 中國, 日本까지 海路로 연결된, 相互 密接히 연결된 文化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地中海라는 바다 연안의 여러 영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북아프리카, 그리스에서 멀리는 美國東北岸까지 이르는 지역을 하나의 文化圈으로 가정하게 된 논리이다. 그들은 이런 文化圈이라는 前提下에서 유럽 건축傳統의 特性을 찾아보려 한다. 이들과처럼 世界건축사를 새로이 바라보려는 시도는 아마도 유럽인들로서는 갖기 어려운 視覺일 것이다. 아직 調査작업만이 착수되었을 뿐이나 建築史家들에게는 대단히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8. 이러한 변모의 대체적인 흐름은 크게 보아 建築史와 意匠論(建築實踐에 밀접히 관련된)간의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시 이 兩者는 不可分의 관계로 近代建築發生期에 깨뜨려 짐으로 해서 여러 混亂이 점점 악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建築史研究도 이러한 視點에서 반함(Banham)이 지적하듯 “建築徒의 教養을 쌓는 對象”이 아니라 실제의 건축창조에 기여하는 건축方法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9)

우리의 경험中, 建築史강의가 건축도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강의보다도 가슴이 설레는 강의였다는 기억은 (물론 첫시간만 그렇고 점점 지리하고 재미없게 되어가긴 하지만) 建築徒에게 建築史강의가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 이유는 건축사강의에서 自身の 장래의 건축活動 또는 자신의 建築家像을 상상해 낼 수 있고, 무엇보다 建築이 무엇인가에 對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였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매우 正當한 것으로서 感像도 幻想도 아닌 것이다. 이런 상상을 感像이나 幻想으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建築史教育方法의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노 제비(Bruno Zevi)가 새로운 建築教育의 展開를 위해, 建築設計를 建築史의 方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건축사가 가진 매력을 充分히 活用하자고 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10)

9. 제비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까지의 樣式論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바, 그것은 建築史를 靜的이고 圖式的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建築史의 순간순간을 “오늘”(modern)의 狀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建築史와 建築論과 建築批評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全体가 되어야 하는 바, 그것은 建築史의 存在 自体가 建築論과 建築批評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建築史강의는 教養的知識의 전달과정이 아니라 狀況의 自體의 演習이어야 하며 말로써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建築의 道具로서 경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建築史의 內容을 이해 하려는 意圖는 그것이 歷史的 理解가 우리들 時代의 건축活動에 必須的인 어떤 信念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建築史가 보여주는 여러 狀況에서 思考와 實踐간의 여러 갈등이 如何히 극복되었으며 또 如何히 克服되었는가를 우리가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사 강의가 훌륭한 方法論을 갖출 수 있다면 建築徒는 프랑크·로이드·라이트(F·L·Wright)보다 더 잘라이트의 建築개념을 이해 할 수 있고, 르·코르부제(Le Corbusier)보다 더 잘 코르부제의 건축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建築史의 方法이 過去의 아카데미한 줄거리 대신 새로운 開放的인, 그리고 動的인 줄거리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반함博士 및 다른 건축교육가들이 얘기하듯(*12)

建築徒는 스튜디오에서 많은 時間을 고뇌하면서 디자인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効果的인 方法으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建築史라는 풍부한 寶庫는 學生들에게나 建築家에게나 創造力의 개발에 有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제이콥스(Jacobo)는 統察力(insight)을 얻는 方法으로 說明하고 있다. 기디온(Giedion) 또한 “歷史는 事實의 集積이 아니라 變化의 根本을 파악하는 統察力”이라고 말하고 있다. (*13)

10. 이러한 建築史의 有用性 또는 活用性은 다시말해 서 建築史家가 어떤 時代의 建築實踐에 상당한 影響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建築史家는 자신의 同時代人에게 “하나의 統一된 時代感覺과 場所感覺”을 구체화시켜 주고 또 거기에 歷史的 妥當性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建築史가 建築實踐에 直接 影響을 끼쳐 줄 수 있고 또 끼쳐 주어야만 하는 所以然이다. 이러한 뜻으로 반함(Banham)은 가까운 장래의 狀況을 과거의 그래프에 의한 外挿法으로 측정하는 것이 建築史家의 임무라고 말한다. (*14)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推定이 命令의 이어서는 안된다고 附言한다. 이렇게 전문적인 建築人에게 미치는 影響력 이외에도 建築史家는 “취향決定”에 影響력 있는 非建築人에게 歷史的 經驗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건축活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도움은 매우 중요한 것인 바 그 이유는 建築生産은 그 特性上 건축가들의 獨自的인 努力이나 能力도 중요하지만 建築消費者들의 “취향決定”의 태도에서도 큰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이 建築消費者들과의 (過去에는 王, 貴族, 승려, 近代에 와서는 브르주아, 대중) 直接的 관련성은 건축과 다른 造形藝術 (가령 회화, 조각, 공예 등)과를 구분해 주는 特性이기도 하다. 다른 어떤 장르의 造形藝術보다 建築이 그 生産에 動員되는 經濟的 物量이 크고 또 建築物의 效用性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렇게 때

문에 建築에 “ARCHI”라는 접두사가 붙었는지 모른다), 逆으로 建築가가 수많은 사람 (生産과 消費에 관련되는) 을 설득시킬 수 있는 能力이 必要함을 뜻하며 同時に 그 사람들이 建築家의 論理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 바탕을 형성하는데, 建築史가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추상적 논리보다는 具體的 歷史경험이기 때문이다

11. 따라서 建築史의 目的으로는 建築의 生産者에게나 消費자에게나 同一한 “하나의 統一된 伝通”을 수립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伝通의 意味는 波特(Potter)가 얘기하듯 人間의 앞날의 행동에 對한 予測判断基準을 뜻한다. (*15) 即 전통의 定立 이란 現在의 狀況을 具體的으로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未來의 行動을 예측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過去에 어떤 事實이 있었다는 것이 그 事實의 正當性과 아무 關係없듯이, 伝通 그 自体에는 아무런 權威가 있을 수없다. 따라서 전통은 어떤 권위있는 知識의 集積이 아니라 思想이나 價值를 바꾸어가는 有機體의 性격을 가진다.

그리고 전통은 부단히 새로 修正, 定立되어야 하는 바, 그 理由는 歷史가 항상 옛 전통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 주기 때문이다. 이런 波特의 얘기를 建築史의 경우로 置換해 본다면 우리는 建築史의 目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여기서 이러한 建築史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를 西洋건축사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16)

유럽의 독일어 사용국에서 베렌스(P. Behrens) 미스(Mies van der Rohe) 로스(A. Loos)등의 건축가들이 一連의 새로운 作品傾向을 보여줬을 때 이들의 作品은도리아(Dorian)的 建築精神을 基底로 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당시의 와르·누보(L'Art Nouveau)적 傾向에 기인한 皮相的 裝飾主義에 反撥한 것이다. 이것을 이들이 過去一切를 否定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當時 建築史家들의 과오였다. 近代建築의 선구자들과 建築史의 전통 사이에는 당시 批評家들이 皮相的으로 얘기했던, 斷絶이 있을 수 없었다. 가령 로스(Loos)는 쉴켈(Schinkel)을 위대한 건축가로 숭배했으며 과테(Gulien·Guadet : 당시 Ecole de Beaux Arts 教授)는 80年前과 거의 같은 建築體系를 페레(A. Perret)나 가르니에(T. Garnier) 같은 急進派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말하자면 近代主義 創始者들은 古典主義의 土壤에서 자라났던 것이다. 그들은 아카데미즘에 혐오감을 表明하면서도 아카데미한 新古典主義의 道具를 자신들의 作業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古典主義의 伝通은 애당초 近代主義건축안에 수립되어 있어서 20세기초의 80여년 동안, 秩序나 規律개념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이다. 即 機械主義, 技術主義의 現代狀況 또한 그 나름의 秩序를 要求하고 있었고 新古展主義는 그 供給源이 되었던 것이다. ڤ르부제가 冊에서(Vers Une Architecture)機械와 古典的 建築을 對比 시키

고 그리스조각가 ڤ디아스(Phidias)와 現代의 自動車 디자이너를 對比시키는 것도 그러한 近代建築과 古典主義사이의 連續性을 보여주는 한 例가 될 것이다.

建築史의 連續性이 깨뜨려지는 것은 1930年頃 기디온(Giedion)이 새로운 視覺으로 近代建築을 해설하기 시작하고 1936年頃 펠스너(Pevsner)가 近代建築의 發生過程을 설명하면서 古典主義나 아카데미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부터이다. 게다가 그즈음 제네바(Geneva)국제연맹本部 현상설계를 가지고 아카데미즘과 近代主義가 正面충돌되면서 古典主義는 當時의 反動的아카데미즘과 同一視되어 몰락하게 된 것이다. ڤ르부제의 近代主義의 案과 아카데미즘에 充實한 案사이의 正面충돌은 本質的인 對立이라기 보다 皮相的인 樣式上의 對立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하튼 이 事件이후 古典主義는 建築史로부터 은퇴하게 되고 이것이 二次大戰후의 近代建築 家들 사이에 知的混亂이 일어나게 된 背景이 된다. 이런 잘못의 근원은 建築史家 및 批評家의 活動이 그 응분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13. 建築批評의 영향력이 建築實踐에 크게 미친 例로서는 英國과 미국의 新古典主義 부활을 들 수 있다. 英國에서는 1950年 以後의 미스(mies)에 對한 評価에서 正反對의 二立場이 충돌됐다. (*17) 英國의 急進의 기능주의자인 데이비스(Hewelyn Davis)와 윗트코어(Rudolph Wittkower)派 사이에서 I. I. T의 크라운·홀(Crown Hall) 휘사드를 두고 벌린 論爭이 그것이다. 데이비스는 그 휘사드를 “無限을 나타내주는” 技術美學으로 설명한 反面 윗트코어派는 그것을 “패쇄적 左右對稱의 古典美學”으로 해석한 것이다. 후자에 의한 이같은 새로운 해석은 機能主義에 對한 권태와 知的不毛性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당시의 여러 建築家들에게 큰영향을 주어 古典主義精神의 復權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新팔라디오니즘(Neo-Palladianism), 新형식주의(New Formalism)등의 이름으로 여러 記念建造物설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요한센(Johansen)이나 스밋손부부(Alison & Pater Smithson)의 50年代 作品이 그러하다.)

美國에 있어서는 그로피우스, 서트(H. L. Sert) 브로이어(Brewer), 미스(Miss)등의 支配下에서 기를 펴지 못하던 에펠 데보자르의 전통이 비평가 出身인 존슨(Philip Johnson)의 노골적인 古典主義부활시도로 다시 活氣를 되찾게 된다. 존슨이 建築家가 되기 前에 뉴욕 近代美術館(Modern Museum)의 건축부장으로 建築史活動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미국건축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최초의 作品인 “유리의 집”(1949 自宅)을 보면 그의 스승 미스의 영향이 뚜렷이 보여지고 있으나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그로부터 5年간의 독립운동(미스로 부터) 끝에 그는 古典主義의 전통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흔히 존슨을 無節制한 折衷主義 作家로 공격하고, 또 사실 그러한 側面도 있기는 하지만,

그가 미국現代建築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공로는 누구나인정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같은 古典主義的 정신의 作家로 알려지고 있는 칸(Louis Kahn) 또한 40代까지 거의 批評活動만을 하여온 작가이다. 에펠 데 보자르식의 建築修業을 받은 그는 末年에 卽 50年이후 近代主義가 退潮하기 시작할 무렵 예일 대학교美術館, 필라델피아대학의 研究所등 作品活動을 시작하여 現代建築의 흐름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그의 에펠·데 보자르의 伝通은 존슨과 같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고, 신중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님으로써 建築界는 물론 특히 建築저널리즘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美國에서의 新古典主義 復權은 機能主義 建築家들의 規律이 문란해지고 美國건축의 분위기가 進取的으로 되어가는 시기, 즉 美國의 全体建築生産이 景氣上昇과 더불어 팽창되었던 시기와 일치하며, 그로피우스가 하바드대에서 물러나는 시기와의 일치하다. 이 復權운동은 주로 建築史 내지 批評活動에 종사하던 建築家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존슨, 칸, 요한센, 루돌프, 야마사키등 같은 계열의 作品活動이 두드러지게 되며 특히 60年代 이후의 建築저널리즘의 作品賞選정기준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18)

註

- * 1 : 太極出版社 : 大世界百科事典. 5. 歴史편 P464.
- * 2 : 왜 굳이 日本의 경우를 살펴야 되는 가를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중요한 이유中的 하나 日本에 있어서는 建築史教育에 對한 反省이 活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歷史的狀況에 對한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 * 3 : 現代의 建築と都市編集委員會. 編, “現代의 建築と都市” PP433~436
- * 4 : ibid PP441~442
- * 5 : ibid P438
- * 6 : 가령 바우하우스에서 그로피우스는 건축사강좌 자체를 빼버렸다. 바우하우스의 이념과 당시의 反動的史觀과는 완벽하게 상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入門入門” 美術出版社刊. 1968
- * 7 : 日本의 경우 1955년까지 研究協議會, 討論會, 合同調査등 活動이 있어오다가 1962年 建築學會에서 民家調査의 基準이 作成되고 이에 따라 研究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現代의 建築と都市” op. cit. PP435~436
- * 8 : 堀内교수 자신의 소개에 의하면 이 연구회가 이제까지 서양건축사에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은 歷史的으로 最古의 건축발생지이기도 하지만 東西洋건축의 接경지로서 세계건축史의 중심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bid PP443~444
- * 9 : Reyner Banham: “Historical Studies and Arch-

14. 이제까지의 建築史와 建築實踐間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建築史는 우리自身的 문제를 파악하고, 제기하고, 그 해결方向을 제시하는 意義 이외의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必要한 자세는 우리自身的 地域이 요구하는, 그 地域에 意味있는 建築狀況을 다룬다는 意識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슬라이드나 그림으로 보는 觀光여행식의 皮相의 자세가 거부된다. 우리의 建築史는 우리自身的 地域的 伝通의 連續性을 강조하여야 하며 우리自身的 特殊한 문제와 그 문제의 特殊한 氣候帶에서의 解決이라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建築은 어디까지나 白紙의 狀態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제작될 수 있는 彫刻的 造形物이 아니고 不毛地의 사막이나 建築雜誌속의 虛空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建築은 항상 具體的 場所와 狀況에서 具體的 人間들의 具體的 生活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建築은 섬머슨(J. Summerson)의 말과 같은(*19) 自身的 固有한 辯證法의 論理로 전개되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孤立主義로 나아갈려는 傾向을 깨뜨려 주는 것이 建築史 本然의 意義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itectural Criticism” outtet (Bartlett School Magazine) No. 55(1964). P46
- *10: Whiffen編: “The History, The any and Criticism of Architecture” P17
- *11: 가령 Le Corbusier의 Soroge로 부터 Ronchamp까지의 편력에서 르르부제 자신의 變質을 엿볼 수 있다. 즉 그의 초기에 科學的 實驗정신에서 神秘的 傾向으로 退化(?) 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관찰은 르르부제 자신의 입으로는 말해 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일 것이다.
- *12: ibid P68.
- *13: ibid P48.
- *14.: Reyner Banham. “The History of immediate Future” P252. A. R. 1960.
- *15: Popper에 對한 Stanford Anderson의 소개 참조 W-hitten編: op. cit. P. 80
- *16: “Knaurs Lexikon Der Modernen Mrchitektur.” 장성준譯 民音社刊 “現代建築事典” PP. 203~204.
- *17: ibid PP 204-205
- *18: ibid PP 165-166
- *19: Sir John Summerson “The case for a theory of modern architecture.” RIBA Journed 1957 June. PP307~310
여기에서 섬머슨은 建築이 建築生産과 分離되어 自身的 固有한 變證法(dialectic)을 전개한다” 고 말하고 있다.